

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## 4. 방화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23년에는 총 1,18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6%가 밤(20:00~03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, 22.7%는 오후(12:00~17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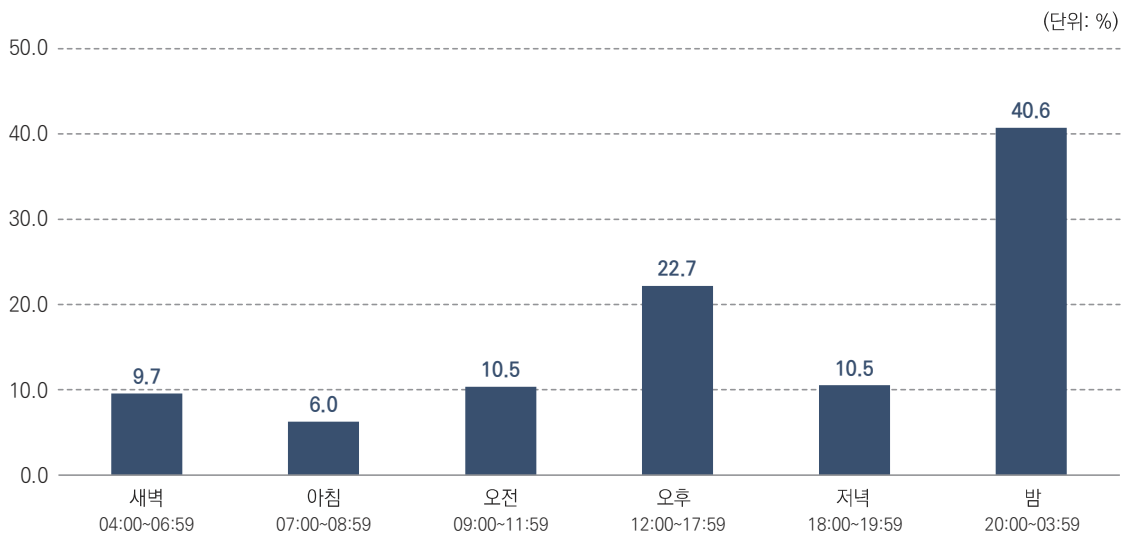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

## 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1.4%는 남성이었으며, 18.6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~60세가 29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61세 이상(18.9%), 41세~50세(18.1%), 31세~40세(12.7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30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61세 이상(20.0%), 41세~50세(17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24.4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20.4%), 31세~40세(17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89(10.1)	14(7.0)	103(9.5)
19세~30세	90(10.2)	33(16.4)	123(11.4)
31세~40세	101(11.5)	36(17.9)	137(12.7)
41세~50세	154(17.5)	41(20.4)	195(18.1)
51세~60세	269(30.6)	49(24.4)	318(29.4)
61세 이상	176(20.0)	28(13.9)	204(18.9)
계	879(100.0)	201(100.0)	1,08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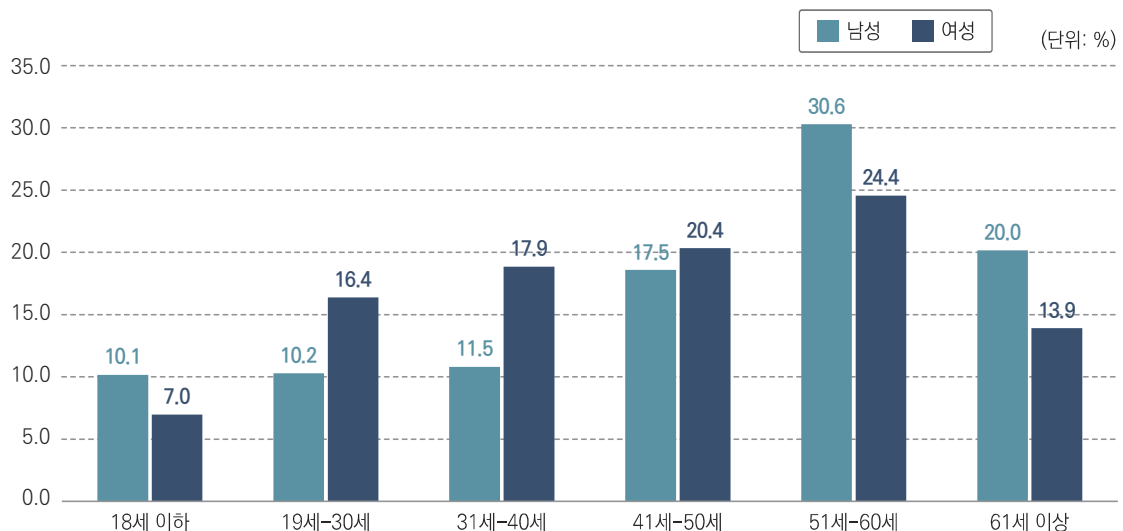


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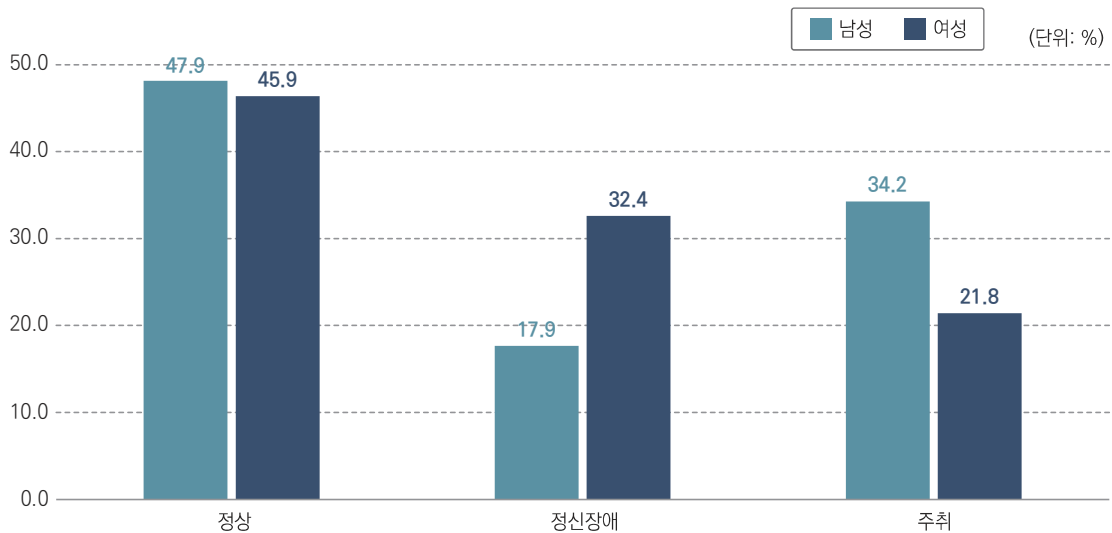
### 3) 방화범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 범죄자의 47.5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31.9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20.5%였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 32.4%, 남성 17.9%)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(남성 34.2%, 여성 21.8%).

**표 32**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364(47.9)	78(45.9)	442(47.5)
정신장애	136(17.9)	55(32.4)	191(20.5)
주취	260(34.2)	37(21.8)	297(31.9)
계	760(100.0)	170(100.0)	930(100.0)



**그림 47**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